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19. 다음은 뒷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뒷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㉑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㉑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㉒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㉓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㉑와 ㉒ 이외에는 ㉓와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 적용
[A]

- ① 병이 ㉑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㉑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② 병이 ㉒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㉑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③ 병이 ㉑를 알게 된 후에 ㉒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㉑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㉒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④ 병이 ㉑와 ㉒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㉑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㉑와 ㉒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㉑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 ⑤ 병과 정이 ㉑를 알게 되기 전에 ㉑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㉑만을 알게 된 후에는 ㉑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겠군.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②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신종기와 바꿨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녘 두던 바ტი 크나큰 너븐 들헝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혼 빗치 되야 잇다
중앙이 거의로다 내노리 호자스라
불근 게 어물고 높은 돛기 술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나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어흔 긴 물래에 밤불이 불가지니
㉠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들이 미리오니
㉡ 돛든빈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뜨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A]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감시 이실 거시런들
적막히 다든 문에 내 분으로 드려오라
사조(私韶)*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에 빗친 빗치 옥루(玉樓)라 다들소나
청춘(淸淸)을 빗째 열고 큰 잔의 7독 브어
㉣ 죽엽(竹葉) 7는 술물 돌빛 조차 거후로니
표연훈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適仙) 이려하야 들을 보고 밋치맛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에 완상이 새로오니
㉤ 몸이 한가하나 귀 눈은 거를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륙이나 다들소나
㉠ 갈호 어조(魚鳥)애 새 밍세 집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섣기엇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이 몸이 이러구롬도 역군은(亦君恩)이 샅다
-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 * 호두포: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 애내성: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 사조: 사사roi 비춤.
- * 모재: 따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 옥당금마: 관직 생활.
- * 몽혼: 꿈.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 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갖근을 나부끼고 인권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단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중자가 상송(商頌)을 노래 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분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업자릉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시대를 잡고, ㉡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건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둑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지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 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빛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 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선 냇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현신짝 벗어 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 성사: 옛날 장진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가사 「월선현십육경가」는 월선현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호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불근 게’와 살진 ‘높은 돛’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지니’와 ‘아적들이 미리 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 제	정 답	배 점	문 제	정 답	배 점
18	④	2	21	②	2
19	⑤	3	22	⑤	3
20	②	2			